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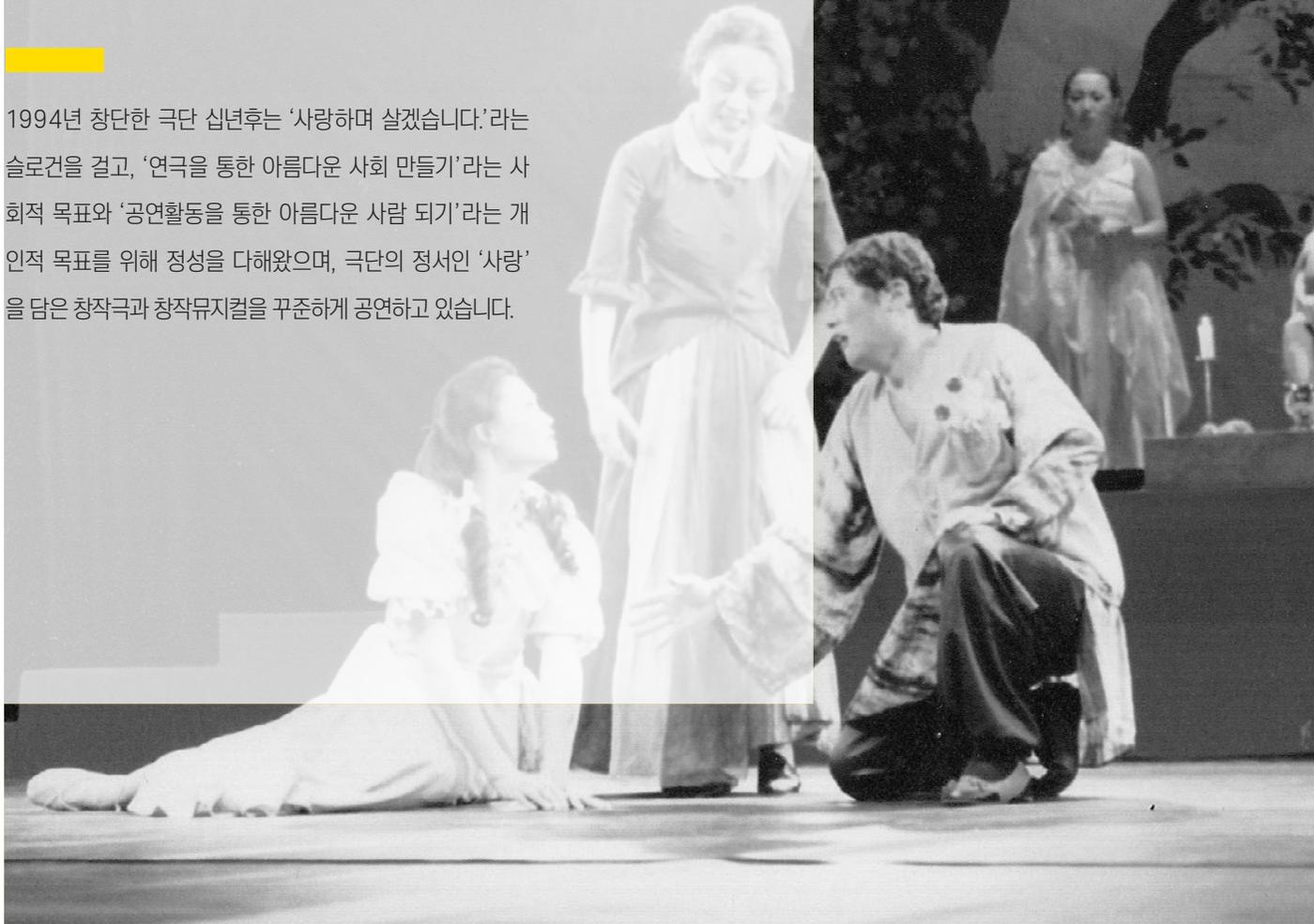
극단십년후 25주년 이야기

1994
2020

| 주요 작품 및 극단 소개 |

인천을 대표하는 극단 십년후의 25년 역사

1994년 창단한 극단 십년후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연극을 통한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라는 사회적 목표와 '공연활동을 통한 아름다운 사람 되기'라는 개인적 목표를 위해 정성을 다해왔으며, 극단의 정서인 '사랑'을 담은 창작극과 창작뮤지컬을 꾸준히 공연하고 있습니다.



Content

- 대표 인사말 03
- 극단 십년후 소개 06
- 25주년 역대 공연 연보 08
- 극단 십년후 수상내역 13
- 주요 레퍼토리 작품
 - 1. 뮤지컬 김구 가다보면 14
 - 2. 연극 신포동 장미마을 16
 - 3. 연극 블랙아웃 18
 - 4. 연극 소문 20
 - 5. 연극 배우우배 22
 - 6. 뮤지컬 성냥공장 아가씨 24
 - 7. 뮤지컬 삼신할머니와 일곱아이들 26
 - 8. 연극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 28
- 25주년 역대 작품 포스터 30
- 공연문의 및 후원안내 33

함께 갑시다



송 용 일
극단 십년후 대표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2년 극단 십년후의 대표로 위임된 송용일입니다. 최원영 박사님께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명제로 지난 20여년 동안 극단 십년후의 초석을 다졌고, 그 기반 위에서 도약하겠다는 다짐으로 쉼 없이 공연예술 작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단원들의 열정과 노력, 외부적으로는 많은 분들의 응원과 도움이 있었기에 20년이 넘는 기간, 인천을 대표하는 극단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년 신작을 만들어내고, 레퍼토리화 하고자 보완·수정 작업을 반복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장르·작업에 도전하며 묵묵히 예술활동에 전념한 결과, 그간 꽤 괜찮은 작품과 평가, 내공이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천을 넘어서서 전국을 무대로 작품활동을 하기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도약하려합니다. 그 도움닫기를 힘차게 뛰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더욱 발전하는 십년 후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후원으로 힘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껏 그래왔듯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힘껏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경력 사항

-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연극전공(석사)
- 극단 십년후 대표 및 상임연출
- 인천연극협회 이사 및 중국연변기무단 초빙 도연역임(연출)
- 경기대 다중매체영상학부 겸임교수 역임
- 중국 연변대학교 예술학부 초빙교수 역임
- 일본 일본대학교 예술학부 연극과 객원연구원

주요 작품 활동

- 뮤지컬: <김구 가다보면><요정마을 쓰쟁대소동> <성냥공장 아가씨>, <삼신할머니와 일곱 아이들>, <박달나무 정원>, <꽃님>, <소서노>, <기적을 파는 백화점> <정읍사> 외
- 연극: <딸의 침묵> <신포동 장미마을> <냄비> <소문>, <후보 나순량>, <딸의 침묵>, <사슴아 사슴아>, <화>, <나비 날아가다> 외

비전 및 목표

- 인천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21년을 성장해 온 극단으로써,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
- 극단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양질의 공연상품 개발에 주력
- 인천 고유의 이야기와 역사를 소재로 하는 인천 대표 문화상품 만들어 지역 및 세대간 소통의 장을 마련
- 상설공연이 가능한 자체 소극장 건설 또는 확보

인천을 대표하는 극단 십년후가 되기까지

1994년 창단한 극단 십년후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연극을 통한 아름다운 사회 만들기’라는 사회적 목표와 ‘공연활동을 통한 아름다운 사람 되기’라는 개인적 목표를 위해 정성을 다해왔으며, 극단의 정서인 ‘사랑’을 담아 창작극 위주로 꾸준히 공연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개개인의 핏속에 흐르는 깊은 사랑과 생명의 소중함을 담아낸 <삼신할머니와 일곱 아이들>을 시작으로, 단국신화에서 한반도와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 <박달나무 정원>, 한민족의 사랑을 다시 대륙으로 전파한 광개토태왕을 그려낸 <꽃님>, 한국적 힘의 근원을 어머니의 사랑에서 찾고자 한 <소서노>까지 창작극 중심의 다양한 공연활동을 벌이면서 2006년에는 고려 목종을 소재로 한 <사슴아 사슴아>로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인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신할머니와 일곱 아이들>은 2007년과 2008년 연속으로 문화관광부 우수공연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전국순회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인천지역을 소재한 뮤지컬 <성냥공장아가씨> <김구 가다보면> <신포동 장미마을> 등을 발표하면서 인천 문화가치 창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여년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한 극단 십년후는 열정적인 공연활동과 창작 활동을 통해 연극 확산의 기여함을 인정받아 ‘전국연극제 대통령상’과 ‘우현예술상’ 등을 수상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전문예술단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극단 창단 25년을 넘어서면서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새로운 십년후를 기획하고 있으며 보다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방법으로 공연 시장을 열어나가고자 치열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예술단체(제2009-3호)’와 ‘비영리민간단체(제2014-0-인천광역시-10호)’로 선정되어 극단 십년후는 앞으로도 꾸준히 건강한 문화 예술 나눔과 봉사활동을 통한 ‘공연문화사랑하기’에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더욱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십년 전의 약속, 그리고 십년 후...

<극단 십년후>의 탄생에는 극단의 이름과 관련된 두 사람의 삶이 얽혀 있다. 창단 당시 공동대표를 맡았던 최원영, 장진호 두 분이다. 의욕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던 20대 후반에 두 사람은 인생의 큰일을 도모한다. 더 넓은 세상에서 각자 공부를 더하고 10년 후에 다시 만나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기로. 서로 다른 나라에서 10년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마주한 두 사람은 10년 전에 약속한 꼭 필요한 일로 고민 끝에 극단창단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그렇게 1994년에 생겨난 것이 <극단 십년후>다. 극단을 창단한 데에는 연출가인 장진호 대표님의 영향이 컸지만 연극 공연으로 작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공연을 보는 이들에게까지 사랑을 나누자는 취지였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를 극단을 대표하는 문구로 내걸었는데, 지금까지도 <극단 십년후>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말이다. <극단 십년후>는 창단공연부터 ‘뭔가 다르다, 혹은 새롭다’라는 평들이 많았다. 창작극을 고집한데다 작곡가와 안무가와의 협업으로 배우들의 몸짓과 음악적 요소가 두드러졌고, 무대장치를 비롯한 의상과 조명, 음향 등 무대 구성의 비중이 높았다. 대사중심의 기성 연극과는 확연히 다른 무대였다. <극단 십년후>가 연극으로 이룬 성과는 적지 않다. 인천연극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비롯해 여러 상을 수상하였으며, 우현예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수의 창작극과 창작뮤지컬은 해를 거듭하면서 작품의 완성도를 높여 꾸준한 감동을 나누어왔다.

다시 그리는 십년 후...

<극단 십년후>가 연습실과 무대 위에 땀을 쏟아낸 세월이 10년을 지나고, 거기에 다시 10년을 더하고, 얼마 후면 또 한 번의 10년을 덧붙이게 된다. 그렇게 지나온 시간 속에서 <극단 십년후>가 의미 있는 이력들을 쌓고 적지 않은 공연성과를 거둔 데에는 험난한 과정을 함께 해준 이들이 많은데, 특히나 극단 단원들의 면면들이 자랑스럽다. 연습부터 공연을 마칠 때까지 쏟는 정성들이 더없이 귀할 뿐만 아니라, 소품이나 의상도 그렇거니와 무대세트를 제작해서 공연장에 세우고 철수하는 일까지 스스로의 몫으로 삼아온 배우들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머지않아 창단 30년을 바라보는 <극단 십년후>의 공연들이 나름의 주목을 받아온 까닭이 또 있는데 현재 극단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송용일 대표님이다. ‘서울무대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일찍이 무대디자인과 장치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기도 했던 바, 극단이 고민하는 제작비의 한계를 거뜬히 뛰어넘는 무대장치 지원으로 늘 극단의 공연을 돋보이게 했다. 연출가로서 송용일 대표님은 철저하게 관객의 시선으로 작품을 구성한다. 덕분에 공감이라는 큰 선물을 선사한다. 기운 충만한 청년기를 넘어서고 있는 <극단 십년후>가 다시 10년 후를 그리면서 어떤 완숙미를 이루어낼지 기대가 크다.

(글 고통희/극작가)

1994

창단

1995

<진흙인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딸의 침묵>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천재시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1997

<빛나간 성> 수봉문화회관

<데이신따이>

1999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수봉문화회관

2001

<결혼할까요> (원제: 시집가는날)

수봉문화회관

연극 <사슴아 사슴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003

가족뮤지컬

<삼신할머니와 일곱 아이들>

서울교육문화회관, 김천문예회관,

아르코예술극장

2005

가족뮤지컬 <삼신할머니와 일곱 아이들>

은평문화회관, 강북구민회관, 전쟁기념관

창작뮤지컬 <꽃님>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창작뮤지컬 <발달나무정원> 대전예술의 전당,

인천문화예술회관

연극 <나는 타스마니아로 간다> 인천여성문화회관

연극 <가라오케 맨> 인천계양문화회관 대극장

1998

연극 <데이신따이> (부제: 일본군위안부)

순천문화예술회관, 인천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2000

<후아유> 수봉문화회관

2002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사나이>

수봉문화회관

가족뮤지컬 <삼신할머니와 일곱 아이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2004

연극 <빨간 팬티를 입은 청소부> 수봉문화회관

창작뮤지컬 <박달나무 정원> 계양문화회관, 김천문예회관

가족뮤지컬 <삼신할머니와 일곱 아이들> 고양어울림극장,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오즈의 마법사>, <종이배>

2006

연극 <B사감과 러브레터>
인천광역시 여성문화회관
어린이교육극 <손 씻을래요>
전국 14개 도시 순회
연극 <사슴아 사슴아>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인천종합문화
예술회관, 계양문화회관
경제교육극 <똑! 소리 나는 이 여자>
창작뮤지컬 <도칸, 소서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008

뮤지컬 <돌아온 미운오리> 소월아트홀, 마장중학교
어린이교육극 <손 씻을래요> 전국 26개 도시 순회
창작뮤지컬 <기적을 파는 백화점> 계양문화회관,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가족뮤지컬 <삼신할머니와 일곱 아이들>
제주 문예회관 대극장, 동두천 시민회관, 김제예술회관
연극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
수봉문화회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축제소극장,
김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경산시민회관



2010

연극 <청자, 물을 만나다> 수봉문화회관
어린이교육극 <손 씻을래요>
전국 27개 도시 순회
교육극 <미안해 친구야> 길상초,
대월초, 선원초, 산곡남초, 청천초,
벽지학교
가족뮤지컬 <삼신할머니와 일곱 아이들>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가족뮤지컬 <랑>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뮤지컬 <엔딩전문, 주식회사 퍼펙트>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2011

연극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
부평아트센터, 2011문화나눔사업 전국사회
복지시설 순회, 부흥초등학교, 인천종합문화
예술회관
교육극 <미안해 친구야>, <우리 함께 손을
잡자> 산곡남초, 신정초, 삼산초
가족뮤지컬 <삼신할머니와 일곱 아이들> KBS
홀, 제천문화예술회관, 경남문화예술회관
뮤지컬 <오리날다> 부평아트센터, 과천시민
회관



2013

연극 <벼락> 문학씨어터
가족뮤지컬 <삼신할머니와 일곱
아이들> 부평아트센터
연극 <소문> 연변대학 예술학원
소극장 (중국 길림성 연길시)
연극 <소문> 부평아트센터,
문학씨어터
창작뮤지컬 <성냥공장 아가씨>
부평아트센터



2015

연극 <배우 우배>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연극 <소문> 전국8개 도시 순회, 부평아트센터
흡연예방교육 연극<연기, 그만>
인천동부교육청 관내 10개 중고교
창작뮤지컬 <For dream>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2007

교육극 <미안해 친구야> 코스모스 아트홀,
금천구민 문화체육센터
어린이교육극 <손 씻을래요> 전국 20개 도시 순회
경제교육극 <똑! 소리 나는 이 여자>
가족뮤지컬 <삼신할머니와 일곱 아이들> 정읍사예
회관, 익산소리예술회관
연극 <돌아온 미운오리> 대광중학교, 성담중학교
연극 <사슴아 사슴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창작뮤지컬 <소서노>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싸리재홀



2009

뮤지컬 <돌아온 미운오리> 화도진중학교,
신흥여자중학교, 박문여자중학교
어린이교육극 <손 씻을래요> 전국 26개 도시 순회
교육극 <미안해 친구야>, <우리 함께 손을 잡자>
소래초등학교, 부원초등학교
연극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
김제문화예술회관, 수봉문화회관, 2009문화나눔사업
전국복지시설 순회, 부개문화사랑방,
현대백화점 천호점, 광주유스퀘어
연극 <나비, 날아가다> 수봉문화회관
연극 <화장터 이야기> 수봉문화회관



2012

연극 <화> 문학씨어터,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
무연극 <나비, 날아가다> 두만강문화관광축제
(중국 도문시)
연극 <소문> 부평아트센터
연극 <나비, 날아가다> 씨어터Zoo
(일본 삿포로극장제)
창작뮤지컬 <성냥공장 아가씨> 부평아트센터



2014

연극 <후보 나순량>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문학씨어터
연극 <소문> 대학로 스타시티예술공간SM, 부평아트센터
창작뮤지컬 <성냥공장 아가씨> 대학로자유극장, 부평아트센터



2016

연극 <배우 우배> 인천문예회관, 중구문화회관, 청주 예술의전당
 뮤지컬 <삼신판타지> KBS 국악관현악단 협연 전국 4개도시순회
 흡연예방교육 연극 <연기, 그만> 인천북부,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10개 중학교
 학교폭력예방교육 연극 <미안해 친구야> 백령도 북포 초등학교
 연극 <소문> 중구문화회관,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창작뮤지컬 <성냥공장 아가씨> 중구문화회관

2018

연극 "신포동 장미마을" 인천연극제 대상수상.
 대한민국연극제 은상수상
 연극 "소문" 중구문화회관
 뮤지컬 <악의구슬을 찾아 떠나는 후토스>
 KBS홀, 지방 순회공연
 환경 뮤지컬 <요정마을 쓰레기대소동>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연극 <하안갈매기> 한중문화관

2020

연극 <딸의 침묵> 중구문화회관
 뮤지컬 <김구 가다보면>
 중구문화회관

수상 내역

- 2019 제 4회 대한민국연극제 남자 최우수연기상 수상<냄비>
- 2019 제 37회 인천연극제 대상수상<냄비>
- 2018 제 36회 인천연극제 대상수상<신포동장미마을>.
- 2018 제 3회 대한민국연극제 은상수상 <신포동장미마을>.
- 2017 제 35회 인천연극제 우수작품상, 신인여자연기상 - 연극 <블랙아웃>
- 2016 제 1회 대한민국연극제 은상 - 연극 <배우 우배>
- 2016 제 34회 인천항구연극제 최우수작품상 - 연극 <배우 우배>
- 2012 제 30회 인천항구연극제 최우수작품상, 남녀우수연기상 - 연극 <화>
- 2010 제 28회 인천항구연극제 우수작품상, 남자우수연기상 - 연극 <청자, 물을 만나다>
- 2009 제 27회 인천항구연극제 최우수작품상, 연출상, 극본상, 여자 최우수연기상, 남녀신인우수연기상 - 연극 <나비, 날아가다>
- 2008 제 26회 인천항구연극제 최우수작품상, 연출상, 여자연기자상 - 연극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
- 2008 제 26회 전국연극제 은상, 여자연기자상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
- 2008 우현예술상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
- 2006 제 24회 전국연극제 대통령상, 연출상, 여자연기자상 - <사슴아 사슴아>
- 2006 제 24회 인천항구연극제 최우수작품상, 연출상, 최우수여자연기상 - <사슴아 사슴아>
- 2005 제 23회 인천항구연극제 최우수작품상, 무대미술상, 최우수연기자상 - <박달나무 정원>



2017

연극 <블랙아웃> 계양문화회관,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흡연예방교육연극 <연기, 그만> 인천북부,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10개 중학교, 부원중학교
 연극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중구문화회관
 연극 <사랑소묘> 북앤커피
 연극 <신의 아그네스>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2019

연극 "냄비" 인천연극제 대상수상.
 연극 <신포동 장미마을>
 인천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해외공연 중국연길
 <신포동장미마을, 성냥공장아가씨>
 연극 <블랙아웃> 낭독공연 찾아가는 연극
 뮤지컬 <김구 가다보면> 중구문화회관.
 인천대학교 대강당(경인일보주최)



01

레퍼토리
작품

뮤지컬

김구 가다보면



시놉시스

무대는 어느 산속 버려진 화장터의 모습이다. 영혼들이 잠에서 깨어난다. 100년 전 우리들이 어떻게 왜 죽었는지를 보여주자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김창수는 주막에서 국밥을 먹던 왜인 쓰치다가 우리 국모를 시해했다고 생각하여 죽인다. 이로 인해 김창수는 인천 감리서에 수감되어 고초를 겪다가 탈출을 감행한다. 그로부터 20년 후... 김구는 중국 상해로 떠난다. 상해 임시정부에 도착해보니 독립투사들의 의견 충돌로 인해 임시정부는 와해 직전에 이른다. 모두 떠난 임시정부의 부활을 위해 한민애국단을 조직하는 김구. 독립투쟁을 위한 그의 활약은 빛을 발한다. 한편, 일본군 하야시는 김구를 잡기 위해 한민애국단에 간자를 투입시킨다. 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투사들의 활약상이 보이던 중 김구는 밀정이 쏜 총에 맞아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 그 후...

공연이력

- 2019년. 중구문화회관 초청공연
- 2019년. 인천대학교 대강당 (경인일보 주최) 초청공연.
- 2020년. 중구문화회관 상주단체 공연



연극

신포동 장미마을

시놉시스

평화롭고 조용하던 "신포동 장미마을"은 보물지도의 등장으로 혼란에 휩싸이는데... 인천 곳곳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침체된 듯 보이는 중구 신포동의 원도심 '장미마을' 이 동네에는 낙낙하지 못한 소시민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다. 느닷없이 불어 닥친 재개발 열풍이 장미마을 사람들을 희망반 걱정반으로 갈등하게 만들고, 때마침 나타난 중국에서 온 낯선 여인의 '보물지도'는 이 장미마을 주민들을 일확천금의 허황된 꿈을 꾸게 하고, 동네는 순식간에 보물찾기로 들썩인다.

연출을 맡은 송용일 대표는 "돈이 된다면 거리낌 없이 자행되는 무책임한 행동과 아무런 양심적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 내면의 속성을 들여다보고자 했다"며 "우리네 모습을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 연극을 통해 투영해 본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공연이력

- 2018년 제 36회 인천연극제 대상수상<신포동장미마을>
- 2018년 제 3회 대한민국연극제 은상수상 <신포동장미마을>
- 2019년 인천문화예술회관 "스테이지149" 초청공연



03

레퍼토리
작품

연극

블랙아웃

시놉시스

초등학생 동민이와 고등학생 동희 남매가 부모님이 해외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맞게 되는 초유의 대정전(블랙아웃) 사태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일련의 사건들을 세련된 디자인의 무대장치와 최첨단 영상효과를 동원해 더욱 치밀하게 묘사한 것이 특징이다. 폭염 속에 도로는 마비되고, 상점들은 영업을 포기한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비상등이 꺼지며, 물과 가스도 끊긴다.

어린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허술한 사회 시스템과 위기에 몰려 이기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습들, 양심을 버리고 본분을 잊고 마는 사람들...

재난 속에 벌어지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그림처럼 보여준다.

연극 블랙아웃은 2015년 책 읽는 부평 대표도서 선정작으로 박효미 동화작가의 원작을, 극단 십년후가 각색한 작품으로, 일주일 동안 일어난 가상의 대규모 정전상태를 다룬 이야기다.

공연이력

2017년 제 35회 인천연극제 우수작품상, 신인여자연기상 수상.



04

레퍼토리
작품

연극 소문

시놉시스

철거를 앞 둔 어느 달동네.
대부분의 주민들이 떠나고... 남은 사람들의 마음은 심란하기만 하다.
시도 때도 없이 헛소리를 늘어놓는 노파는, 헛구역질하는 선이를 보고 애를 낳을 거라는 말을 해서 동네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옥살이 중인 오빠 봉학 탓에 귀머거리 선이는 혼자 지내는 중인데, 선이의 배가 불러오자 마을 사람들은 더욱 들썩인다.
철거와 선이의 임신으로 시끄러운 마을에, 형을 마친 봉학이 돌아오는데.....

공연이력

- 2009년 초연
- 2009년 인천항구연극제 최우수작품상, 연출상, 극본상 등 수상
- 2012년 일본 삿포로연극제 초청 - 씨어터 Zoo 4회 전석 매진
- 2013년 중국 연변예술대학 초청 - 2회 전석 매진
- 2014년 대학로 진출 - 유료관객 점유율 78.3%



“절박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을 코미디로 풍자한 작품”



연극

배우우배



시놉시스

극중 자신이 맡은 배역에 지나치게 몰입하곤 하는 배우 박우배

새로운 작품이 끝나고 자신이 마주하게 될 상실감과 허탈감이 두려워 새로운 작품의 대사조차 제대로 외우지 못한 채 괴로워하며, 배우의 길을 포기하기로 한다. 방황하던 중 우연히 뜻밖의 제안을 받는다. 20년 전 실종된 친일파의 손녀 송준미의 행세를 해서, 그에게 돌아올 유산을 나눠 갖자는 제안. 박우배는 점점 송준미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며 몰입해가면서 점차 '진짜' 송준미가 되어간다. 배우로서의 뛰어난 연기력과 순발력, 그리고 주변의 도움으로 마침내 송준미의 가족들로부터 진짜 송준미임을 인정을 받고, '송준미로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던 어느날.....

공연이력

- 2015년 초연
- 2016 제34회 인천항구연극제 최우수 작품상 수상
- 2016 제1회 대한민국연극제 은상 수상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며
붉고 푸르게 빛나는 저마다의 인생들!
인생은 하나의 연극이다!

뮤지컬

성냥공장 아가씨



인천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천시민들이 즐길 수 있고,
나아가 인천의 지역정서를 다른 지역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문화
상품으로 제작한 뮤지컬.

시놉시스

1960~70년대 인천 산업화의 중심이었던 '성냥공장'을 배경으로, 당시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저임금 속에서 궁핍한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성냥 한 통씩을 치마 밑에 감추고서 공장문을 나서야했던 당시 어린 여공들과 그 주변의 이야기
억압된 삶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동생 인숙, 희생적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인내하며 품고자 하는 언니 인화, 책임감 강하고 마음이 여린 강 반장 그리고 돈과 권력을 탐하는 사장을 중심으로, 40년 전 암울한 시대상황과 성냥공장의 부도, 어린 여공들의 삶을 향한 절규, 공천에서 탈락한 사장의 분노 등이 뒤엉켜, 결국은 화재가 날 수 밖에 없었던 성냥공장...

공연이력

- 2012년 연극 <화> 창작, 초연
- 2012년 제 30회 인천항구연극제 최우수작품상 수상 (연극 <화>)
- 2013년 뮤지컬 <성냥공장 아가씨>로 각색 제작
- 2013년 경인일보 창간 68주년 기념공연 선정
- 2014년 대학로 자유극장 장기공연



성냥공장의 불은 누가 질렀습니까?

성냥공장에 얽힌 이야기들을
흥겨운 노래와 춤으로
살려낸 작품, 장년층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젊은이들에게는
현대적 감각의 신나는 공연을!



뮤지컬

삼신할머니와 일곱아이들



시놉시스

새 꿈을 꾸고 졸졸이 딸 여섯을 낳은
월희 엄마가 봉황새가 날아드는 태몽을 꾸고
일곱 번째 아이를 임신하자
봉황새 꿈이 아들인지 딸인지 궁금한 여섯 자매들이
삼신할머니를 찾아가는 모험이 무대 위 판타지로 살아난다.
여섯 자매들은 곧 태어날 동생을 만나지만,
막내 봉희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려 하면서
엄마가 위험해 처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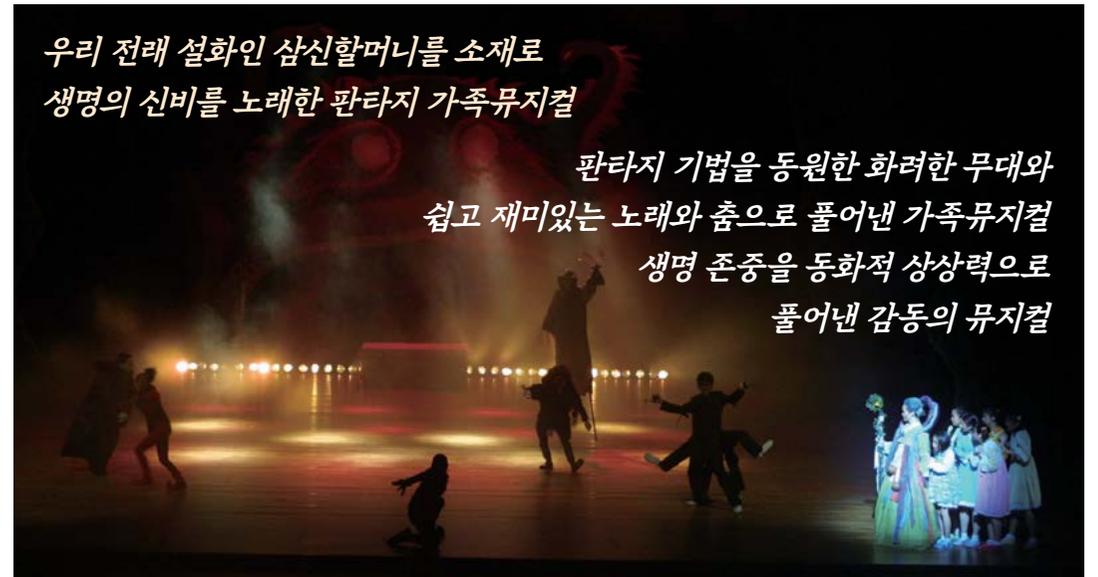
공연이력

2002년 초연 이후 300여 회 공연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초청 공연
김천가족연극제 초청 개막작
2007, 2008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우수공연프로그램 선정
2016년 KBS관현악단과 전국 순회 공연



우리 전래 설화인 삼신할머니를 소재로
생명의 신비를 노래한 판타지 가족뮤지컬

판타지 기법을 동원한 화려한 무대와
쉽고 재미있는 노래와 춤으로 풀어낸 가족뮤지컬
생명 존중을 동화적 상상력으로
풀어낸 감동의 뮤지컬



뮤지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

시놉시스

리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로 사랑과 감동을 담은 아름다운 가족극이다. 작품은 주인공 장원장이 운영하는 치매전문병원에 치매에 걸린 장원장의 어머니가 입원하면서 겪는 갈등과 화해를 병원이라는 무대를 배경삼아 소담하게 동화같이 그려 나간다. 슬프고 한스러운 이야기를 웃음으로 담백하게 풀어내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하며, 서정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한다. 또한, 어머니란 주제를 과장 없이 잔잔한 감동으로 전해 관객들의 눈가에 촉촉한 눈물을 던져 줄 것이다

공연이력

2008년 제 26회 인천항구연극제 최우수작품상, 연출상, 여자연기자상
제 26회 전국연극제 은상, 여자연기자상
2008년 우현예술상 수상.



25년 역대
공연 포스터



딸의 침묵
(1995)



진흙인간
(1995)



천재시대
(1995)



레몬.섬의 베틀베
(1996)



도칸, 소서노
(2006)



기적을 파는 백화점
(2008)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2008)



화장터 이야기
(2009)



청춘은 안개의 젖는다
(1996)



데이신파이
(1998)



사슴아 사슴아
(2001)



꽃님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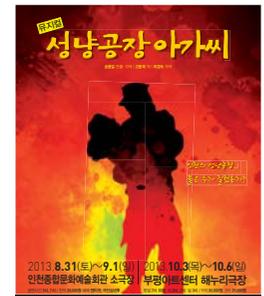
랑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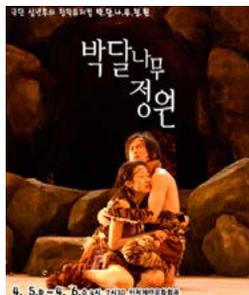
엔딩전문, 주식회사 퍼펙트
(2010)



소문
(2012)



성남공장 아가씨
(2012)



발달나무정원
(2005)



나는 타스마니아로 간다
(2005)



B사감과 러브레터
(2006)



사슴아 사슴아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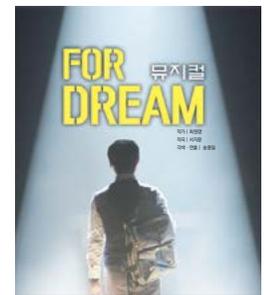
벼락
(2013)



후보 나순광
(2014)



배우 우배
(2015)



For dream
(2015)

25년 역대
공연 포스터



삼신판타지
(2016)



블랙아웃
(2017)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2017)



신의 아그네스
(2017)



신포동 장미마을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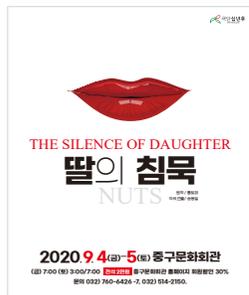
하얀갈매기
(2018)



냄비
(2019)



김구 가다보면
(2019)



딸의 침묵
(2020)



공연섭외 공연 문의 안내

극단 십년후의 우수한 창작극 초청 및 작품 제작 의뢰를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TEL. 032-514-2150 E-mail. 10years1994@naver.com
SNS. http://www.facebook.com/10years1994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31번길 6, 4층

‘극단 십년후’ 후원회원 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은
극단 십년후의 올바른 공연을 이끄는 가장 든든한 자원인 동시에
인천은 물론 한국의 공연문화를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

매월 1만원 이상 정기 후원을 해주시면

1. 극단 공연의 VIP 티켓 2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 극단 십년후 브로셔 및 관람공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3. 공연 제작진 및 출연진과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4.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극단 운영의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5. 극단의 발전 과정 및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 연말정산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문의 전화. 032-514-2150



사랑히며
산것음니라
극단십년후 더불어 함께



극단십년후
Ten Years Later

극단십년후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31번길 6 극단 십년후 T. 032)514-2150